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정책적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기 성 진*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the Deduction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Sung Jin-Ki*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실증적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양육태도의 경우에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애정·수용적태도의 경우에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의 경우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에서 보다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개인적 특성과의 조절작용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Keyword : 부모양육태도, 민주-자율적태도, 애정-수용적태도,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ich influence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has on adolescents'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results showed that parenting attitude positively affected social adjustment; particularly,

• 제1저자 :기성진
• 접수일 : 2012. 02. 16, 심사일 : 2012. 02. 25, 게재확정일 : 2012. 02. 28.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affection and acceptance had significant effects on academic and social adjustment.

As for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upon school life adjustment, women showed more significant result than men in schoolwork adjustment, social adjustment, and environmental/general adjustment when attachment factor is high.

Also, it could be known that the birth placing moderates the influence upon social adjustment by democratic·autonomous parenting attitude and attachment·acceptance-based parenting attitude in the parenting attitude.

▶ Keyword : Parenting attitude, Democratic·autonomous attitude, Attachment·acceptance-based attitude, School Life Adjustment

I. 서 론

최근 청소년들의 개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미래의 국가 경쟁력인 청소년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은 하루 평균 10시간 47분, 중학생은 9시간 4분을 공부에 할애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창의성과 자기개발에 여전히 취약하다.

200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의하면 한·중·일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 '나는 지금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69.2%, 중국 89.5%, 일본 78.4%로 한국이 가장 낮았고 대학입학을 86%의 고학력 사회임에도, 기업들은 신입사원에 대하여 '도전정신', '전문지식' 등 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청소년은 자기주도적 역량을 바탕으로 꿈을 키우고 실현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청소년들에게 가족,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을 지원·보호하는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또한 저소득층, 학업중단, 다문화, 가출 청소년 등 취약·위기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가족부 2009년에 의하면 부모와의 갈등(23.3%)이나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 학교가기 싫을 경우(19.4%) 가출 충동을 느낀다고 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Atwater [4]는 훌륭하고 건강한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에 순응하는 수동적인 관계 이상으로 개인과 환경이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이며, Simon-Morton & Crump[24]은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을 포함하는 학교적응, 학교 참여도, 학교 풍토와 같은 3

가지 측면에서 학교적응을 설명했다.

기존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성별, 출생순위의 조절효과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강의식 교육보다는 청소년과의 친밀도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을 중심으로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청소년에 대한 소극적 복지보다는 청소년을 성장동력으로 여겨,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취약한 상황과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양육태도

역사적으로 볼때 부모 자녀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Freud[1] 파에 의해서 초기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부터이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최고의 교육자이고 가장 장기간에 걸쳐 통제력과 영향력을 갖는 관계가 된다[3].

Fisbein[8]은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 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서 가족구성이나 가정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의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Becker[6]는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정의할 수 있

으며 부모의 자녀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 해 주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2. 성별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그동안 부모자녀관계를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자녀 양육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해 왔다. 부모들은 보통 자신과 같은 성의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12] 이러한 양상은 아버지에게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라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여학생들은 주관이 뚜렷하고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Steinberg[26]는 사회적 리더로 성장한 여성들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부모님과 강한 유대감을 나타냈으며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인 성역할기대로부터 자유로우며, 도전과 진취의식에 대한 격려를 받고 성장한다고 보고하였다. Baker[5]는 어머니가 보이는 성별에 따른 태도에서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많은 기대치가 높았으며, 미래의 수학성취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높은 기대를 하여 남녀의 성취를 달리 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또 Adler[1]은 아동의 학문적 태도와 부모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의 성에 따라 자녀의 수학적 성취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남녀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출생순위의 선구자인 Adler[1]는 첫째 자녀는 부모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둘째 자녀는 부모의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첫째 자녀처럼 많은 것을 요구 당하지도 않고 강제적으로 해야 할 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개성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Hurlock[10]는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 성인역할을 모방하며, Hetherington[9]는 동생이 태어나 부모의 관심과 기대에 벗어나도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된다 하였다. 그래서 Altus[5]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여 부모에게 인정받으려는 특성에 탁월한 능력을 Falbo & Polit[7]은 부모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자녀의 출생순위 및 형제 유무에 따라서 양육행동에서 차이를 보이며 부모의 동일한 양육방식을 통해 자라난 자녀들이 서로 상이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양육방식, 형제, 자매관계, 그밖의 가정환경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출생순위가 자녀의 행동특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였다[2].

Macillicuddy-Delisi[17]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를 낳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녀에 대한 가치관등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고 하였다.

4. 학교생활적응

Spencer[25]는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의 적성과 학습 환경의 멀티미디어적 성격 및 교육의 합리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학교순응 또는 적응의 정도로 적응했다. Wentzel[28]은 사회적 동기, 행동적 유능성, 긍정적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학교적응을 정의하였다.

Rathus[21]에 의하면 인간은 단순히 환경에 반응하는 반응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행위자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삶이 의미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단지 적응했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되기위해 Ladd[13]은 학교 생활적응을 청소년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라고 제안하여, 학교 환경에 대한 학생의 자각과 감정에 초점을 둔다고 했다.

Spencer[25]는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 및 요구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데 필요한 학교순응 또는 적응으로 정의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점차 학교생활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학업적인 측면과 더불어 이와 함께 학교생활에 대한 정의를 복합적인 개념으로 폭넓게 시도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양육태도를 독립변수로 보고 하위요인으로 민주·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수용적 양육태도로, 종속변수의 하위요인으로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으로, 조절변수로는 성별, 출생순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표 1. 모형의 구성변수
Table 1. components of the model

구성요소		내용	관련 연구
독립 변수	부모양육 태도	민주 자율적태도, 애정·수용적태도	Schaefer(1958), 서정숙(2010)수정보완
종속 변수	학교생활 적응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	Garlington(1984) 성선진(2010)
조절 변수	성별, 출생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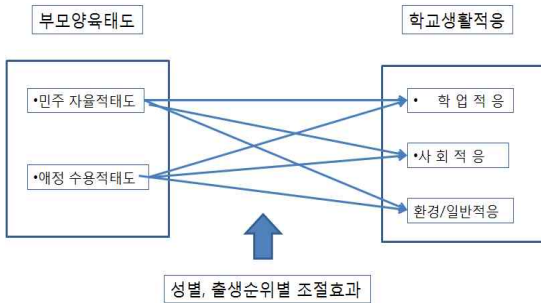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The research model

2. 가설 설정

표 2. 연구가설 Table 2. research hypothesis

구분	내용
가설 1	1-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부모의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높을 것이다.
	1-3 부모의 민주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높을 것이다.
가설 2	2-1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 부모의 애정·수용적 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3 부모의 민주 자율적 양육태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3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1 부모의 애정·수용적 양육태도는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2 부모의 민주 자율적 양육태도는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 및 측정

3.1 인구나사회학적 특성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을 알아 보기위해 성별, 출생순위, 부모 학력, 결혼상태, 동거여부, 경제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부모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에 성별, 출생순위가 조절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3.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측정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지는 Schaefer(1958), 차재호(1974)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기초로 한종혜(1980)가 작성한 것을 서정숙(2010)이 수정 보완한 내용을 썼다. 총 24문항으로 5점 Likert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어쩌다 그런 편이다(3점), 자주 그런 편이다(4점), 거의 항상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애정·수용 - 적대·거부차원과 민주·자율 - 권위·통제의 2차원으로 분류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수용적이거나 민주적, 자율적인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의 양육태도를 애정·수용적 양육태도, 민주·자율적 양육태도로 용어를 통일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3 학교생활적응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학교생활 검사지는 김택호, 김재환(2004), 김용래(1993)의 학교적응척도, 문은식(2001)의 학교생활 적응행동검사, 조중현(1984)의 학교생활적응척도, Epstein 등(1976)의 학교생활 질 척도, Garlington(1984)의 학교태도 척도 등을 참조하여 만든 학교생활적응척도를 성선진(2010)이 사용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영역을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 3가지로 구분하여 학업적응에는 수업참여, 학습노력, 학습의 지속성, 학습행동통제에 관한 내용과 관련된 20개의 문항이 포함되고, 사회적응에는 교우 및 교사 관계, 규칙준수와 관련된 문항 20개, 그리고 환경/일반적응 영역에는 학교환경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 10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자료수집 및 방법

본 연구는 광주 소재 중학교 2개교를 선정 남자 중학교 3학년 전체와 여자 중학교 3학년 전체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하여 총 600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이중 응답에 불성실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 수거되지 않은 설문지 74부를 제외한 526부가 결과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하여 예측가능성, 정확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타당도 분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으로 묶어서 단일차원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AMOS 18.0버전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 하였다. 또한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의 경로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 실증분석

1. 표본선정 및 특성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2개학교로 남자 중학교 3학년 전체와 여자 중학교 3학년 전체를 선정하여 600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응답이 성실치 못하거나 수거되지 않은 설문지 74부를 제외하고 526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응답자인 중학생에 대한 526명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가 64.4%, 여자가 35.6%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첫째 43%, 둘째 41.5%, 셋째이상 15.5%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 43.2%, 대졸이 43.0%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53.9%, 고졸이 31.4%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에는 초혼이 88.4%로 나타났으며, 동거인 별로 보면 부모님이 87.6%로 나타났다. 경제력은 300만원-400만원의 경우에 24.0%, 500만원이상 29.1%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검증

2.1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크론바하 알파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양육태도와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에 있어서 0.8 이상과 비슷한 수치로 나타나 신뢰수준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표 3.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Table 3.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평균	표준편차	Cronbach의 알파
양육태도	민주자율	2.99	.588	.788
	애정수용	3.34	.626	.822
학업적응	수업참여	3.07	.657	.791
	학습노력	2.63	.733	.804
	학습행동	3.04	.738	.662
	전체	2.87	.508	.911
사회적응	교우관계	3.64	.685	.818
	교사관계	2.87	.862	.885
	규칙준수	3.50	.735	.702
	전체	3.25	.562	.828
환경/일반	환경적응	2.79	1.126	.769
	일반적응	3.04	.861	.816
	전체	2.95	.519	.734

표 4. 요인분석결과
Table 4.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표준화계수	Estimate	SE	CR	P
학업적응인원체	<- 애정수용요인	.309	.251	.041	6.153	.000
학업적응인원체	<- 민주자율 요인	.406	.672	.108	6.229	.000
사회적응인원체	<- 민주자율 요인	.389	.384	.077	4.991	.000
사회적응인원체	<- 애정수용요인	.383	.211	.056	5.979	.000
환경/일반적응인원체	<- 애정수용요인	.380	1.136	.148	7.684	.000
환경/일반적응인원체	<- 민주자율 요인	-.037	.433	.257	7.686	.000
N2	<- 민주자율 요인	.617	1.000			
N1	<- 민주자율 요인	.550	.105	.156	7.774	.000
N0	<- 민주자율 요인	.623	1.728	.229	7.534	.000
N9	<- 민주자율 요인	.507	1.655	.222	7.227	.000
N8	<- 민주자율 요인	.601	1.900	.282	7.555	.000
N7	<- 민주자율 요인	.509	1.357	.185	6.988	.000
N6	<- 민주자율 요인	.470	1.932	.255	7.469	.000
N5	<- 민주자율 요인	.570	1.442	.213	6.991	.000
N4	<- 민주자율 요인	.383	1.397	.207	6.748	.000
N3	<- 민주자율 요인	.316	1.820	.255	7.735	.000
N2	<- 민주자율 요인	.614	1.650	.223	7.394	.000
N1	<- 민주자율 요인	.557	.957	.179	5.393	.000
N0	<- 애정수용요인	.702	1.000			
N23	<- 애정수용요인	.689	.889	.082	10.889	.000
N22	<- 애정수용요인	-.370	1.039	.081	12.785	.000
N21	<- 애정수용요인	.556	1.016	.082	12.342	.000
N20	<- 애정수용요인	-.434	-.566	.075	-7.516	.000
N19	<- 애정수용요인	.408	.832	.077	10.373	.000
N18	<- 애정수용요인	.684	-.570	.066	-8.685	.000
N17	<- 애정수용요인	.683	.878	.080	9.752	.000
N16	<- 애정수용요인	-.198	1.004	.082	12.283	.000
N15	<- 애정수용요인	.641	1.065	.088	12.139	.000
N14	<- 애정수용요인	.582	-.316	.076	-4.172	.000
N13	<- 애정수용요인	.811	1.034	.066	11.955	.000

수업참여	<←	학업적응요인체계	-1.03	1.000				
학습능력	<←	학업적응요인체계	.586	1.037	.02	12711	.00	
학습활동	<←	학업적응요인체계	.647	-1.73	.051	-3419	.00	
교우관계	<←	사회적응요인체계	.674	1.000				
교과관계	<←	사회적응요인체계	1.54	1.438	.161	8999	.00	
규칙준수	<←	사회적응요인체계	1.32	1.279	.142	9010	.00	
환경적응	<←	환경일반적응요인체계		1.000				
일반적응	<←	환경일반적응요인체계	1.31	1.21	.000	.701	.00	

2.2 확인적요인분석 경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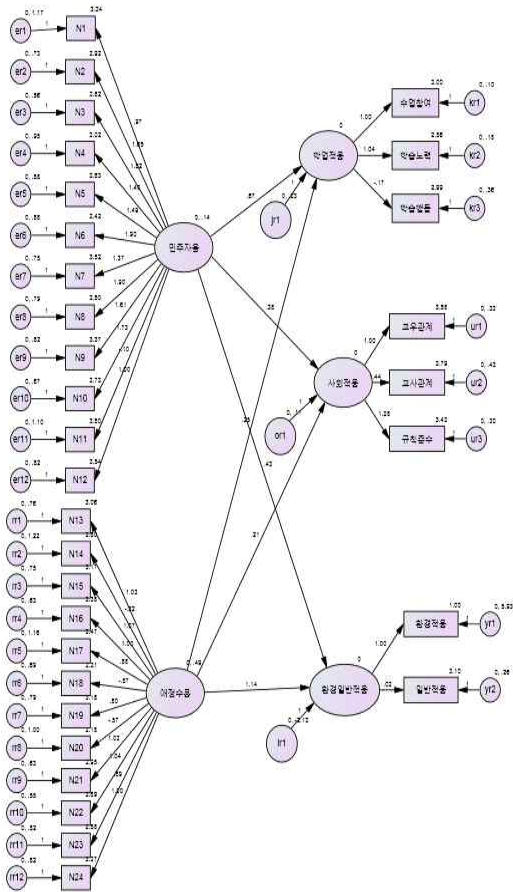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Fig. 2 analytical results of the study model

표 5. 요인분석결과 적합도 지수

Table 5.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fit indices

χ^2	df	RMSEA	Q값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143.80	30	.014	4.79	.930	.939	.931	.899	.890	.940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 제시되었던 확인된 이론적 구조모형을 근거로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을 분석하고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 NFI는 .902, CFI는 .926, GFI는 .919, AGFI는 .902, TLI는 .907, RMSEA는 .023로서 본 연구모형은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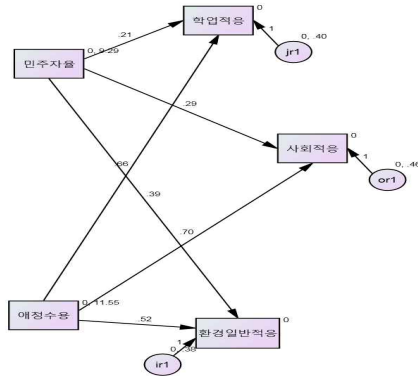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분석결과
Fig. 3 analytical results of the study model

표 6.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6. research of the model fit indices

χ^2	df	RMSEA	Q값	NFI	CFI	GFI	AGFI	TLI	Delta 2
217.32	40	.023	5.43	.902	.926	.919	.902	.907	.916

4. 가설 검증결과

부母的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가설검증 결과

Table 7. the results of hypothesis test

		β	B	S.E.	C.R.	p	
학업적응	<←	애정수용	.927	.655	.008	81.074	***
학업적응	<←	민주지율	.268	.211	.009	23.389	***
사회적응	<←	민주지율	.337	.289	.010	29.914	***
사회적응	<←	애정수용	.906	.698	.009	80.445	***
환경일반	<←	애정수용	.801	.523	.008	65.662	***
환경일반	<←	민주지율	.530	.387	.009	43.489	***

*p<.05, **p<.01 ***p<.001

연구가설 1의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애정수용의 경우에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 적응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준화경로계수값의 경우에 각각 .927, .906, .80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민주자율의 경우에도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 적응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표준화경로계수값의 경우에 각각 .268, .337, .53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태도의 경우에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애정수용의 경우에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1-1, 1-2, 1-3.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다.

3.1 성별에 따른 집단 간 경로차이

가설 2의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성별에 따른 집단 간 경로차이 조절효과분석
Table 8. An Analysis Moderating Effect of Path difference in Gender

		남	여	제약모형(χ^2/df)	$\Delta\chi^2/df$
학업적응	← 민주 자율	.264***	.157***	4520.9(19)	0
사회적응		.338***	.794***	4522.7(19)	1.8
환경일반적응		.434***	.427***	4528.6(19)	7.7
학업적응	← 애정 수용	.627***	.674***	4555.5(19)	34.6
사회적응		.676***	.705***	4561.9(19)	41
환경일반적응		.479***	.588***	4533.8(19)	12.9
자유모형 $\chi^2=4520.9, df=18, p=0.000$					

여기서 환경/일반 적응의 경우에 $\Delta df=1$ 에 유의미한 차이인 $\Delta\chi^2 =3.84$ 보다 크므로 자유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자의 경우에 남자보다 애정수용이 높을 경우에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에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자율의 경우에는 환경/일반적응이 $\Delta\chi^2 =3.84$ 보다 크므로 자유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주자율의 경우에 남자가 여자보다 환경/일반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 모두 애정수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므로 “가설2.는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3.2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 간 경로차이

가설 3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출생순위에 따른 자유모형(free)과 제약모형 분석 결과
Table 9. An analytical result of free model and restricted model according to birth orders

		첫째	둘째	셋째	제약모형(χ^2/df)	$\Delta\chi^2/df$
학업적응	← 민주 자율	.301***	.273***	.261***	4495.0(28)	25.9
사회적응		.283***	.578***	.105***	4491.5(28)	29.4
환경일반적응		.423***	.433***	.198***	4488.2(28)	32.7
학업적응	← 애정 수용	.578***	.596***	.578***	4504.6(28)	16.3
사회적응		.708***	.437***	.861***	4510.0(28)	10.9
환경일반적응		.496***	.479***	.695***	4499.1(28)	21.8
자유모형 $\chi^2=4485.2, df=27, p=0.000$						

*p<.05 **p<.01 ***p<.001

자유모형의 적합도는 NFI는 .909, CFI는 .929, GFI는 .936, AGFI는 .903, TLI는 .920, RMSEA는 .042이고, 제약모형의 적합도는 NFI는 .899, CFI는 .889, GFI는 .871, AGFI는 .878, TLI는 .852, RMSEA는 .032로서 두 모형 모두 대체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자유모형의 χ^2 은 4485.2, df는 27이고, 제약모형의 χ^2 은 값과 df값은 <표 >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Delta df=1$ 에 유의미한 차이인 $\Delta\chi^2 =3.84$ 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유모형이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로계수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 간의 구조모형 경로계수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민주자율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경로계수에서 첫째가 높았으며, 셋째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적응의 경우에는 둘째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일반적응의 경우에는 둘째가 높게 나타났으며, 셋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애정·수용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둘째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응은 셋째가 높았다. 환경/일반 적응의 경우에도 셋째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순위가 양육태도에서 민주자율과 애정수용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의 경우에 가설이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 중학교3학년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개인적 특성인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양육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설문결과로 분석문항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측정도구를 검증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결과와 해석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둘째, 양육태도의 경우에 사회적응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애정·수용적 양육태도의 경우에 학업적응과 사회적응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른 집단 간의 구조모형 경로계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들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와 유의도 수준을 알아보았으며, 민주·자율의 경우에 남자가 여자보다 환경/일반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여자의 경우에는 학업적응, 사회적응, 환경/일반적응 모두 애정수용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출생순위에 따른 집단 간의 구조모형 경로계수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자율적 양육태도에서는 학업적응에 미치는 경로계수에서 첫째가 높았으며, 셋째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적응의 경우에는 둘째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일반적응의 경우에는 둘째가 높게 나타났으며, 셋째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애정·수용적 양육태도에서는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에 둘째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적응은 셋째가 높았다. 환경/일반적응의 경우에도 셋째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순위가 양육태도에서 민주·자율적 양육태도와 애정·수용적 양육태도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적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가 시사하는 가장 큰 의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성별과 출생순위의 조절변수들의 구조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에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는데 있다. 둘째, 성별 중심의 변인들을 통하여 남녀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요인을 추출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설명하는 보호요인을 구체화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부적응 행동을 파악하고자 할 때, 성별에 따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고양시켰

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교육적접근을 달리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자의 경우 자율적의사에 의한 민주주의적 접근방법을 여자의 경우 애정 수용적인 태도인 감성적인 방법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출생순위 검증결과는 서열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에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분석하여 부모-자녀 관계의 역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출생순위의 조절효과를 밝혀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올바른 교육적 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재인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성장원동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이다. 그러기에 청소년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필요하다 하겠다.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짓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부모교육과 선생님들의 일선현장에서의 개인적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교육프로그램등을 제작하여 교육 리소스로 제공해야 한다. 지역사회·연구기관·학교간 연계, 학생지도시에도 개인적특성에 따른 온라인 컨설팅을 구성하여 학생지도에 보다 체계적인 자세로 학생상담에 접근해야 한다.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을 이해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업중단, 다문화, 가출 청소년 등 취약·위기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등이 강화되어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References

- [1] Adler, A (1956), The individual Psychology, New York : Harper & Row.
- [2] Altus, W. B. (1966). Birth order and its scquence. Science, 151, 33-49.
- [3] Anderson, B. J., & Coyne, J. C. (1991).

- "Miscarried helping" in the families of children and adolescent with chronic diseases. In J. H. Johnson & S. B. Johnson(Eds.), *Advances in child health psychology*(pp. 167-177) Gainesville: University of Florida.
- [4] Atwater, E. (1979). *Psychology of adjustment : Personal Growth in Changing World* . Prentice-Hall , Inc ., Englewood Cliffs , N. J . [transferred by kim in ja (2004). *Adaptation personal growth in the changing world*. Seoul: Korea counselling center]
- [5] Baker, D., Entwisle, D. C.(1987) The influence of mothers on the academic expectations of young children: A longitudinal study of how gender differences arise. *Social Force*, vol. 65. pp. 670~696.
- [6]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M.L. Hoffman and L. W. Hoffman(e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69-208.
- [7] Falbo, & Polit. (1987). A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09~325.
- [8]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 Wesley.
- [9] Hetherington, E. m. (1975). *child psychology: a contemporary viewpoint*. New York : McGraw-Hill.
- [10] Hurlock, E. B.(1972). *Child Development*, 5
- [11] Hudson, J. L., & Rapee, R. M. (2001).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nxiety disorders: An observational stud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9. 1411-1427.
- [12] KA . Kim . "The Effects of Gender and Birth Order on Parents' Expectation of Their Children's Caree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ounggi University. 2005
- [13] Ladd, G. W. (1990) .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 1081-1100.
- [14] Longfellow, C., Zerkowitz, P., & Saunders, E. (1982). The quality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D. Belle (ED.), *Lives in stress: Women and depression* (163~176). Beverly Hills, CA: Sage.
- [15]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New York : Harcourt Brace Jovanovich.
- [16] Macillicuddy-Delisi, A. V. (1980). The role of parental beliefs in the family as a system of mutual influences. *Family Relations*, 29, 317~323.
- [17] Miller, D. R, & Swanson, G. E. (1985). *The changing American parent: A study in the Detroit areas*. New York: Wiley.
- [18] Mills, R. S. L., & Rubin, K. H. (1998). Are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both differentially associated with childhood agg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Canadian Journal of Behavior Sciences*, 30, 132-136.
- [19]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 New York : Grune and stratton.
- [20]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 [21] Rathus, S. A., & and growth; *The challenge of life* Orlando: Harcourt Brace.
- [22] Schaefer, E. S. & Baley, N. (1960). Consistency of maternal behavior from infancy to pre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1(1), 106.
- [23] Sargent, J. (1983) . The sick child: Family complications. *Developmental and Behavioral Pediatrics*. 4, 50-56.
- [24] Simon-Morton, B. G ., & Crump, A. D.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 [25]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 [26] Steinberg, B. S. (2009). The making of female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 the impact of birth order, sex of siblings, and father-eaughter dynamics. *Political Psychology*, 22(1), 89-110.
- [27] Thomasgrad, M. (1998). Parenta: perceptions of child vulnerability overprotection, and parent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8(4), 223-240.
- [28] Wentzel, K. R. (2003). School Adjustment. In W. M. Reynolds, G . E . Miller, & I . B . Weiner(EDS.), *Handbook of Psychology: Educational Psychology* (vol. 7. pp.235-258). NJ : John Wiley & Sons.

저 자 소 개



기 성 진

2010 남부대학교 외래교수
2011 조선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2012 현 (225200) 江蘇省江都市
教集團 (江都市新都南路坂河南
한국어교사, 호남대학교겸임교수
관심분야: 청소년, 다문화가족등
Email : regina572@paran.com
(H.P) 15052558101 (중국핸드폰)
(H.P) 01022031300 (한국핸드폰)